

人  
스토리  
열입곱번째

그누가  
그이름을  
무명초라했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원도서관 人 스토리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차례

그녀의 삶에 귀를 기울이다 4

새로운 가족을 만나다 16

가족이 된다는 건 24

행복하다고 말 할 수 있는 오늘 34

매일의 기록-나의 일기장 44

### 황오녀

1947년 전남 장흥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엄마 같은 언니의 손에서 자랐으며

경기도에서 군 복무를 하던 형부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늘 배우는 삶을 원했고, 글 적는 일에 자신 있다.

자식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아낌없이 베풀었다.

# 그녀의 삶에 귀를 기울이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어 온다-천둥이 내리다-눈이 온다-눈이 내리다

